

‘이 시대의 지성’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에게 듣는다



“사람·도시·자연 함께 성장해야 문화도시”

대담=박진현 논설위원

-이번 국제포럼에서 문화도시의 전제조건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상적인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인간과 도시, 자연이 함께 ‘성장’해가는 유기체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요즘 광주나 서울 등 여러 도시에서 말하는 문화도시에는 인간과 자연은 뒷전이고 도시가 주인공 행세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아있는 ‘오래된 것’들은 초라하다는 이유로 부수고 대신 고층빌딩이나 랜드마크들을 내세워 ‘문화도시’로 치장합니다. 빙민한 복판에 모던한 분위기의 예술 전당이 들어선다고 하루아침에 문화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건물이나 아니라 마을(민민)과의 조화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새 건물이나 대형 이벤트가 도시를 단숨에 문화도시로 변화시키는 ‘마술’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비엔날레 작가들이 광주는 ‘비엔날레 벨트’를 벗어나면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광주’가 새겨들어야 할 충고입니다.

-현재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문화전당과 전남도청 별관을 둘러싸고 철거를 요구하는 문화 중심도시 추진단과 보존을 주장하는 일부 5월 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도청별관을 보존해야 겠네요.

▲지금은 ‘철거녀’ ‘보존이냐’의 단계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절차상의 문제’

이 시대의 대표적 지성인 김우창(72) 고려대 명예교수가 7일 (사)국제문화도시 교류협회(이사장 정동재)가 주최한 ‘2009 문화도시정책연구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왔다. 김 교수는 국내 학계에서 ‘파밀리’를 거느리지 않았음에도 폭넓은 사유와 균형감각으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부터 존경받는 ‘큰 어른’이다. 특히 문학의 경계를 넘어 철학, 건축, 물리학, 정치경제학을 아우르는 그의 식견과 삶에 대한 성찰은 좌표를 상실한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날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만난 김 교수는 문화도시에서부터 옛 도청 별관 철거논란, 이데올로기 대립, 촛불집회 등에 대한 견해를 때론 나즈막하게, 때론 격정적으로 쏟아냈다.

이데올로기 대립 좁히는 건 상대방 존중하는 마음

추진단-5월 단체 ‘도청 별관 철거 합의’ 지켜져야

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문화전당 착공식이 있기 전에 이미 추진단과 5월 단체가 합의해 철거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와서 도청별관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차상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 회의에서 무등산에 가기로 결정해 김밥까지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면 나머지 식구들이 이 기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이 시끄럽게 되겠지요. 추진단과 5월 단체가 합의해서 결정한 내용

은 존중돼야 합니다.

-지난 2일은 촛불집회가 1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진보와 보수, 좌·우 등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신문에 연재한 칼럼에서 거리집회는 새로운 시민운동이라기 보다는 대외정치를 부정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썼는데 곧바로 인터넷에 ‘김우창을 추모하며’라는 댓글이 올라오더군요. (웃음)

거리집회는 4·19 혁명 때처럼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반정부성격이 강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합리적 토의과정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촛불집회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해선 곤란합니다. 이슈를 제기해 사회가 인정하는 ‘틀’(국회)안에서 절차를 거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나와 견해가 다르면 그 차이를 들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귀를 닫아 버립니다. 이 같은 경직된 사고로는 보수와 진보의 소통은 요원할 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존경받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존재이십니까?

▲앞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을 이야기 했지만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언제든지 ‘현실’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짧은 시절 진보적인 성격이 강하더라도 나아가 들면 상대의 입장이나 ‘다른 길’을 보게 되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좁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루돌프 폰 에링이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존중이 있으면 권리(투쟁)는 없다’고 설�했습니다. ‘존중’의 정신을 갖추면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전 김호기(연세대 사회과학) 교수는 전화를 걸어 나를 무도좌파로 쓴다면 적절하냐고 물더군요. 박 선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웃음)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937년 함평 출생▲광주 서중·광주고 졸업▲서울대 영문과·미 하버드대 박사(미국문명사) ▲1974~2003년 고려대 영문과 교수 ▲저서 ‘궁핍한 시대의 시인’ ‘지상의 척도’ ‘이성적 사회를 향하여’ ‘심미적 이성의 탐구’ 정의와 정의의 조건’ 등 다수 ▲프랑크 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장(2004년) ▲2003년 녹조근정훈장 ▲현재 고려대 명예교수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



새로운 출발! 성공의 첫단추! - www.kimyoung.co.kr

대학편입은 역사,, 김영

광주분원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7-8088

편입영어 전문강좌

□ 영어 초보자를 위한 기초이론반 (문법/독해/어휘)
□ 파트별 문제풀이 적용반 (문제작성/독해작용/어휘작용)

= 김영 TEST =

□ Daily weekly monthly Test 를 통한 자신의 강점/ 약점을 파악 수정, 보완
□ 매일 출석 출결 점검 □ 개인별 학습상담

1개강 5월 1일, 2개강 5월 4일

사원모집

18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상조종합 서비스 전문회사 (주)조은이웃 상조 광주지점에서 기죽을 구합니다.

모집내용

- 모집부문 : 팀장후보 0명, 사업자 00명
- 자격 : 30~49세 신체 건강한 남녀 프리랜서, 겸업, 주부 부업 가능
- 기타 : 전화 및 내사 후 안내

조은이웃 상조에 가입 하시면..

■ 경제적 입니다.
부담없는 월부금에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 편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 믿을 수 있습니다.

18년 전통과 전국망 서비스, 완벽한 회원 인전장치

상조
goodneighbor
조은이웃(주)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

언젠가는..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길,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갑자기 되친장례, 복잡한 절차, 타무니 없는 기객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내 가족처럼 예와 정성을 다하는 조은이웃 상조에 가입하세요!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 ✓ 복잡한 절차가 걱정 되시는 분
- ✓ 비싼 장례비용이 부담 되시는 분
- ✓ 가족 친지가 없어 장례 치르기가 어려우신 분
- ✓ 안전한 회사일까 불안 하신 분

18년 전통의 대표 상조회사 (주)조은이웃 광주지점

T. 062) 367-9006 H.P. 010-7653-1950

= 저마다 합격의 예쁜 꿈들, 無等과 함께하면, “꼭”이뤄집니다! =

7·9級 공무원 전직렬

30·40 주부반모집학원 행교세 관강법 검마 철교보 보강·특강
5년간 소방인력 출원 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인 원 : 총강원 9월 23일(월) 7급 800여명 풍채
• 시험일 : 7월 7일(금) 2010년 8월 17일(금)

개강

5월 15일(주) 아름다운 모임

(현대상업집수준)

• 출제율 2개월, 아간반 3개월 완성 =

</